

# 운영자금 부담에 고용 줄이는 광주 소상공인

### 광주 소상공인 11만5000개 0.9% 줄어...종사자 수 2000명 감소 월세 인상률 전국 최고...임차비율 광주 75.7% 전국 평균 웃돌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 침체 여파로 광주 지역 소상공인이 1년 새 1000명 줄고, 종사자 수는 2000명 감소했다.

특히 녹록지 않은 영업 환경 속에서 광주 전세가와 월세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은 광주 11만5000개·전남 14만8000개로 집계됐다.

광주 소상공인은 1년 전보다 1000개(-0.9%) 줄고, 전남은 3000개(1.8% ↑) 늘었다.

전국 소상공인은 지난 2020년 412만7000개에서 지난해 411만7000개로, 1만개(-0.2%) 감소했다. 1년 새 소상공인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는 서울(-3.0%)과 울산(-2.6%), 대구(-2.3%), 대전(-1.4%), 광주(-0.9%), 부산(-0.6%) 등 6개 시도이다.

광주 소상공인 종사자 수 감소 폭은 사업체 감소 폭보다 심했다.

지난해 광주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1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0.9%) 줄었다. 전남 종사자는 2000명(0.9% ↑) 늘어난 2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평균 종사자 수는 광주·전남 모두 1.7명으로, 2명이 채 되지 못했다. 소상공인 가운데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비율은 광주 75.7%·전남 59.9%로, 광주는 전국 평균 임차비율(74.2%)을 웃돌았다.

임차 점포를 쓰는 소상공인을 들여다보면 보증금을 거는 보증부 월세 비중이 광주 81.0%·전남 64.9%로 가장 많았다.

무(無)보증부 월세는 광주 6.0%·전남 13.9%로 나타났고, 전세는 광주 2.5%·전남 4.7%였다.

무상으로 점포를 빌린 소상공인 비중은 광주 9.3%·전남 15.6%로, 모두 전국 평균 비율(8.5%)을 웃돌았다.

지역 소상공인이 낸 평균 보증금은 광주는 1년 전보다 크게 오르고 전남은 내렸다.

지난해 평균 보증금은 광주 2154만원·전남 1529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5.1%(283만원)

오르고, 16.5%(303만원) 내렸다.

광주 보증금 인상률은 전국 평균(8.2%)의 2배 가까이 수준이었으며, 부산(18.2%)·울산(15.3%)에 이어 7대 대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지역은 무보증부 월세와 전세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광주지역 무보증부 월세는 107만원으로, 전년 69만원보다 55.1%(38만원) 뛰었다. 이는 전국 평균 무보증부 월세 증감률 -6.4%(78만원→73만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세가는 2020년 2877만원에서 지난해 5549만원으로, 2배 가까이(92.9% ↑) 뛰었다.

전남 무보증부 월세는 2020년 49만원에서 지난해 43만원으로 12.2%(-6만원) 내렸고, 같은 기간 전세기도 4644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32.2%(-1494만원) 내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 원전 수출 위한 'K-원전금융' 구축

### 한수원·금융기관 등 협약

한국전력이 해외원전 수출사업 공동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이른바 'K-원전금융' 업무협약을 최근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한전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정책·민간금융기관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 한수원은 정책·민간금융기관에 해외 원전 수출 사업 발굴 및 관련 금융 조달에 필요한 사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 참여와 지원을 통해 향후 해외 원전 수출 사업 추진과 금융지원을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업무협약은 지난 8월 출범한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가 마련한 수출전략의 후속 조치이다.

한전 측은 원전 수출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민간금융간 협력체계 구축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앞으로 정책·민간금융기관 대상 원전금융 세미나를 열고 실무자 간 직통 연락망을 개설해 원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두 기관은 영국, 튀르키예, 폴란드, 체코, 필리핀 등 글로벌 원전 시장을 대상으로 K-원전 판촉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전 측은 "원전 수출사업은 다른 발전사업보다 수심조원 규모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건설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금융 구조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 수출입은행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은 것처럼 국내 정책·민간금융기관의 참여와 정교한 금융 전략은 향후 원전 수출에 있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여성기업 간담회

### 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여성기업 지원 방안 논의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7일 도내 여성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성장지원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진원 이성희 원장, 케이제이종합건설(주) 박은숙 대표를 비롯해 총 12명의 여성기업 대표가 참석해 여성기업의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한 마케팅

에 대해 안내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과 품목에 맞는 맞춤형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이성희 진흥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도내 여성기업과 한층 더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국내외 판로 지원 마케팅을 비롯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지난 1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 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여성기업 성장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여성기업과 교류 협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금속재료제조 유철중·목칠공예 김진용씨 '전남도 명장' 선정

### 숙련기술 전수·봉사활동 활발 증서·기술장려금 500만원 지급

전남도가 최근 도내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금속재료제조 직종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유철중 과장, 목칠공예 직종의 담양 송명목공예 김진용 대표를 '전남도 명장'으로 선정했다.

'전남도 명장'은 도내 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숙련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해 2020년 조례를 제정한 이래 기계설계, 선박설계, 전기, 식품가공, 제과·제빵 등 38개 분야의 92개 직종에서 연간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명장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유철중 과장은 제강

(철강제조) 분야 3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제련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제탄소강의 정련방법 등 단독특허 16건 외 다수의 특허 등록 실적을 가지고 있다. 특허받은 더블 슬래그 조업 기술 구축, 설비 공정 개선을 기반으로 제품 제작 시간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공정 기술력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도내 학교 진로지도, 특강, 기술 강의 및 다수의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용 대표는 가구·비품 등 목공예품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21년 경력자다. 2021년 고용노동부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됐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도 갖추고 있다. 2건의 단독특허 등록, 6건의 디자인등록 등의 실적이 있다. 대표 실적으로 국내 최초로 보이차 서랍장을 개발해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여기에 특허받은 환기 가능 밀폐형 덮개로 여러 차량이 섞이지 않게 만들어 공방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가구 제작·수리 재능기부 봉사, 목공예 체험교실 운영, 창업동아리, 인력양성 사업 참여 등 여러 활동도 펼치고 있다.

전남도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칭호와 함께 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연 100만원씩 5년간 총 500만원이 기술장려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 시 지역 명장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올해 선정된 숙련기술인은 오랜 시간 연마해온 능력으로 지역 숙련기술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라며 "향후 명장들이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KISA, 광주·전남 대학과 정보 보안 인력 양성

### '호남 사이버월드' 성과 공유회 학생 12명 참여...맞춤 교육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광주·전남 지역대학과 정보 보안 인력을 함께 양성한 성과를 지난 26일 공유했다.

진흥원은 이날 나주 본원에서 '2022년 호남 사이버월드'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대학의 정보 보안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기업의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광주·전남 6개 대학교 학생 12명과 호남지역 협력기업 11개가 연초부터 10개월에 걸쳐 이 사업에 참여했다.

지역대학은 정보 보안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지원받았고, 전문 인력이나 예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협력기업들은 동반 성장 기회를 얻었다.

인터넷진흥원은 우선 참여 학생의 정보보안 역량과 수준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성된 정보 보안 인재들은 협력기업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했다.

진흥원은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 효과적인 산·학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했다. 광주대학교 사이버보안 경찰학과는 이날 우수 활동상을 받았다.

김도균 진흥원 혁신경영담당장은 "KISA가 가진 정보보안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대학과 협력기업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 동반성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